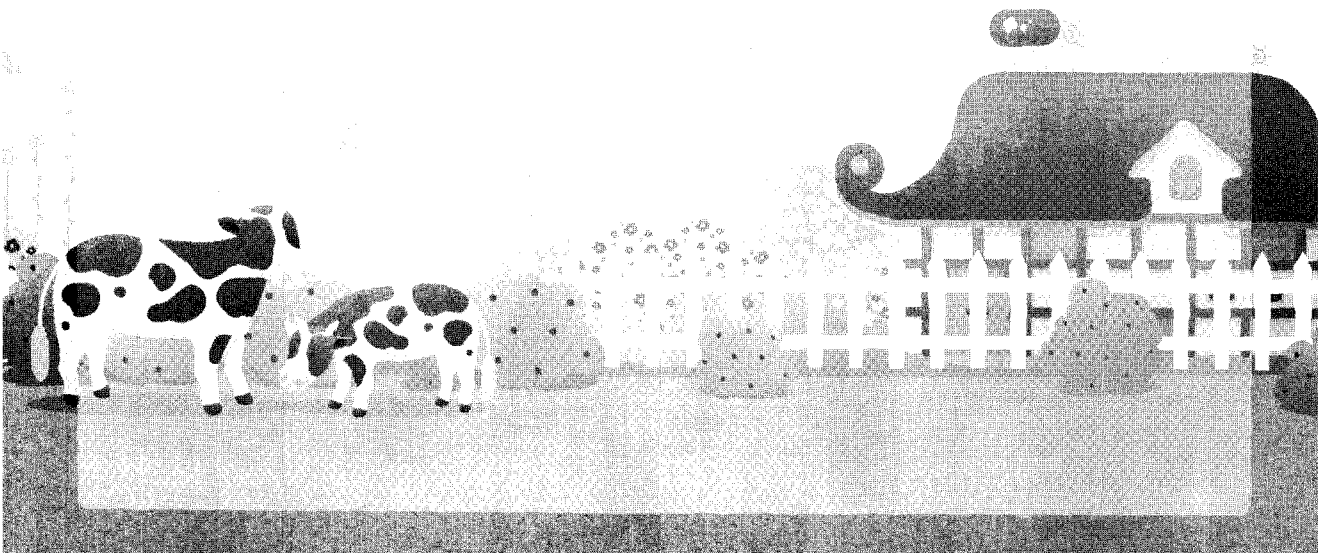


교육후기

제4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을 다녀와서



변화! 함께 했던 여주의 D여사의 말처럼

정 태 선 경기 용인 송지목장

이번 4기 여성낙농인 전문화 교육은 참석했던 모든 이에게 시작은 미풍이었으나,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강풍의 변화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올해로 2년 차라는 이 교육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낙농산업의 여건 속에서 나의 목장을 현실에 냉철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성낙농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의

함께한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점과 경영의 노하우를 교류 및 공유하였고, 강사진을 통하여 회계장부관리 및 경영 계획수립 등 나의 목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비 절감은 나의 손에서 여성낙농인 스스로 먼저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인의 마인드를 갖추고 2세 경영의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실로 뜨거운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경의(잠언 31:10~18) 말씀 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13~14) 밤이 새기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15)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니(18) 그런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신업이 꺾질치 아니하겠느니라(11) 비유되듯 이렇게 열정적이고 현숙한 여성 낙농인의 모습 속에 비록 농가 수는 줄었고, 각종 FTA 및 높은 생산비로 인한 경영 압박, 환경문제 및 질병문제 등의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산업 가운데 낙농이 건재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며, 모든 낙농인들이 환하게 웃는 밝은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로서 각 지역마다 본이 되리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4기 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얻기까지 일정을 만들어주신 낙농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교육의 연장선과 여성낙농 마이스터의 교육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3박 4일의 일정을 함께 하신 협회 회장님, 임직원, 강사진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4기 여성 낙농인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꿈을 위하여!

이창순 경기 파주 돌목장

언제나 앞만 보며 사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오던 내게 낙우회모임을 다녀온 남편이 내민 한 장의 교육안내장은 메마른 내 가슴 위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

40명 선착순 모집이라는 글귀에 바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교육일정이 시작되는 날만을 고대하며 보냈다. 사실목장전문화교육(회계관리 비용관리 법률 마케팅)이 갖는 복잡한 이론과 실무교육이 내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우유를 짜는 목장선배님들과의 만남에 설렘이 컸다. 중년 이상의 농촌여성의



생각과 삶의 철학, 그리고 농촌이 안고있는 현실의 애환을 공감하며 서로를 다독일 수 있는 인간적 교류의 시간이 내게는 절실했다. 바쁜일정과 생활 속에서 차분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 또래의 여성이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가에 대한 궁금증은 교육일정을 기다리게 했던 설레임이었다.

교육장소인 수안보 한화콘도로 떠나기 전날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국 비누 몇 장을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지치고 힘든 날 그 비누

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였다.

상상 그 이상으로 모두들 좋아하고 기뻐해주셨다. 한 공간에서 3박4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갖게 되었던 어색함과 낯설음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그 환한 웃음들이 있었다.

첫 수업시간. 윤세진 강사님의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멋진 강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농업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학습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모두들 반짝이는 눈빛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밀려오는 졸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육시간엔 다 이해가되고 공감하며 습득했던 농업회계의 기초이론들이 막상 시험지를 앞두고 답안을 작성 할 때는 어찌그리 당황스럽던지... 애꿎은 볼펜만 돌리고 있을 때,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던 그리운 2조 남들...

다음번에 다시 지금과 같은 배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두모두 백점을 맞았을지 모른다.

20여년의 결혼생활 내내 부지런히 기록만 했던 일기장 형식의 가계부는 결산을 미루고 미해결로 남아있던 부끄러움을 통감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하여 내 목장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수 있는 현명한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을 해주셨던 나현채 강사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을 바꾸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반태섭 강사님의 기질테스트로 나 자신의 기질 성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상대와의 교류와 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해준 좋은 시간이었다.



3박4일의 길지만 짧았던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 죽음처럼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돌아해보면 모두가 참으로 열심히 산다는 것이었다.

목장경영의 애환과 그리고 삶의 이유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생업의 고된 하루일과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고 있는 내 이웃의 모습을 보며... 치기만 만했던 이십대의 내모습을 떠올린다. 한때는 조그만 소음의 국어교사를 꿈꾸던 소녀가 목장을 하고 싶어하는 낭군을 만나 가졌던 철없던 그 꿈. “매일 하얀 우유로 목욕을 시켜주리라”던 낭군의 달콤한 말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버릴 수 없었던 유일한 꿈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쩌다 손가락에 묻은 우유 한 방울도 아까워하는 억척이 파주 봉암골 아줌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그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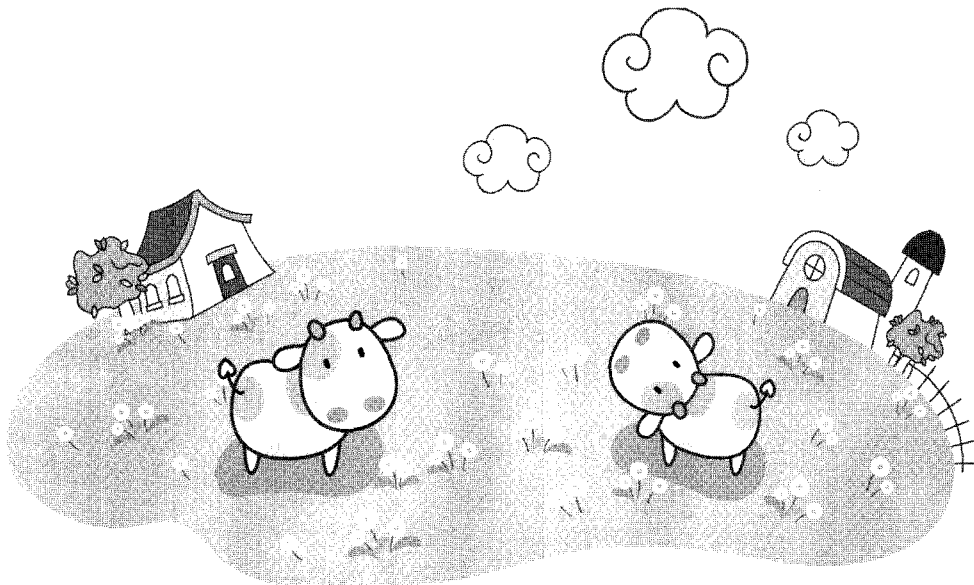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뒤돌아보면 늘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이지만 간직하며 살던 꿈이 이제 퇴색해가는 중년의 나른한 일상에서 만나 3박4일의 여정을 열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신 님들과의 소중한 기억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살겠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밤.

꿈속에라도 행여 외주실까 고대하며 얽히고 손을 놓고 이제 다시 치열한 삶속으로 걸어가련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



오랜 잠에서 깨어난 기분

엄 미 희 경남 창원 우용목장

여성 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교육신청을 하게 된 후, 저는 마음이 설레게 되었습니다. 여고 시절 이후 여성들만의 교육에 참가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날짜가 다가 오면서 교육 이틀 전부터 잠을 설치게 되었고, 드디어 교육 날짜가 되어 교육장소인 수안보 한화리조트에 도착하니, 전국 각 처에서 모인 우리 여성 낙농인 들을 만나고 보니 어디선가 만난 듯한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각 조가 정해지면서, 언니, 동생으로 불려지게 되고, 어느듯 한 식구, 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경영교육과 회계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면서도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무지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이 이런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후회 하였습니다. 하지만 늦다고 생각 할 때가 빠르다고 한말이 생각 났습니다.

우리의 목장 자산이 얼마나 되며 자본과 투자에 대하여 알게 되고 우유 1kg 생산에 대한 사료비와 복장 경영에 있어서 비용과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경영 상태가 좌우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손익 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살림과 경영을 직접 기록 하면서 작성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얼마의 순이익을 얻게 되었는지를 제 스스로 작성하여 본다고 생각하니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리더쉽(D.I.S.C) 교육을 통하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다를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가치관도 있구나 인정하며 맞춰가고 연합하여 좀 더 잘사는 앞서가는 낙농가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숙해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 낙농인들이 안주하지 말고 '환골탈태' 해서 완전식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때 낙농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도 이 같은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 만나서 복장 경영과 목장 교육에 허심 탄하게 얘기 하면서 배워 나갈 때 정보 교환도 되고 여성 낙농인으로서의 교육하는 여성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하신 협회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그리고 여성분과 이정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로, 정말로

감: 감사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

소녀시절로 돌아간 가슴벅찬 시간들

조 정 미 경남 하동 금와목장

너무나 소중한 배움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많은 비와 더위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서 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는 두려움과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망설이는데 무조건적인 남편의 권유로 출발 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 했지만 젖소 부인이라는 공통점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 편성을 하고 조장을 정하고 바쁜 순간에도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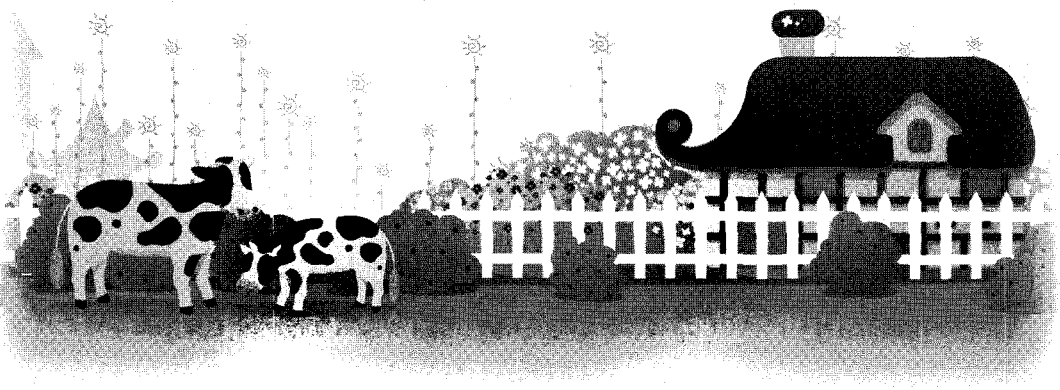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 하지 않은 것들, 알지 못한 것들, 돈이 이렇게 많이 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공부였습니다. 각 조별 게임을 통해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가슴을 조이며 미션을 완수하는 마음으로 매순간 순간이 긴장이었습니다. 강사님은 강의 하고 교육생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교육과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각 조원들의 생각을 종이에 채워 넣어야 하는 긴장감과 이겨보겠다는



열정에서 소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 젖을 짜는 아줌마가 아닌 한 소녀로 돌아가 경쟁하고 웃고 하는 시간에 어느 순간 우리들은 회계공부 속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딱딱한 회계가 아닌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 공부였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 할 수 있는 회계 공부를 위해 강사님들은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쉽 없는 교육을 통해 우리들은 3박 4일의 공부를 마치고 우수한 4기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장경영에 관련된 모든 관리기록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고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금전적 거래내용을 부기를 통해서 목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영/회계하면 돈 계산만 잘 하면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제는 기록을 바탕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고 분석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조별 토론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교육과정을 신청 했을 때는 교육신청자들이 많아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 교육 역시, 이렇게 많은 낙농 여성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은 자연의 거대한 위협의 태풍도 잠재우는 위대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경영 기술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후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장의 열기가 가슴속을 가득 채웁니다. 교육을 준비하신 분들과 교육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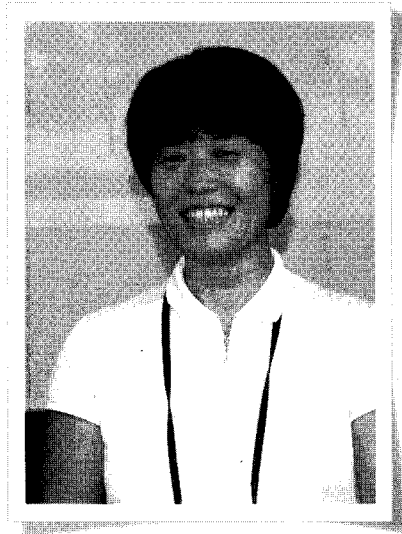




나를 프로 경영인으로 변화시킬 교육

변은숙 제주 북군 지현목장

2010년 8월 31일 제주를 떠나 청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고 땀이 줄줄 나는 날이었다. 우리 젖소 엄마들의 뽀나들이는 너무도 힘들다. 시내 나가기도 별러 외출하는 데 3박 4일동안이나 목장을 비우려 하니 걱정반 기대반! 그러나 일상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목장경영전문화교육에 참석하기위해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의 세 여자인 혜숙언니, 신순언니, 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언니들과의 외도여서 더 좋았다.



우리의 집합 장소는 충주 한화수안보콘도 찾아가기가 까마득하다. 다행히 공항에서 육우협회로 전화했더니 마중을 나와 주신단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다.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었다.

교육장소에 도착하니 처음 보는 얼굴들이어서 서먹서먹하고 언니들과는 떨어지기 싫었다. 그러나 규칙상 각각의 도별로 조가 짜져서 서로 떨어졌다. 나는 4조였다. 우리는 전남 충북 경남 충남 제주 각 도에서 모였다. 우리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업종의 일을 한다는 것! 처음은 서먹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교육이 시작되면서 '내가 이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을까?', '꾸벅꾸벅 졸면 어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였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교육을 담당해주신 윤세진 강사님이 잘 생기셨고 호감이 간다는 것이였다. 나는 윤세진 강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교육생을 어떻게 강의 할까 궁금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강의를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가상으로 1박 2일 여행가기 게임을 했다. 각 조마다 우왕 좌왕 우리는 제주도로 정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10년도 넘게 사귀 친구처럼 어느새 한 식구가 되어 있었다. 이것도 훌륭한 강사님의 지도력이었을까?

열심히 일만 잘하고 젖소만 잘 키우고 우유만 잘 생산하면 되는 줄 알았다.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 경비, 현금흐름표 등 생소한 용어교육을 받으며 학교 다니면서도 잘 안 하던 공부 25년이 지난 지금 책상에 앉아 즐지 않고 생기를 느끼며 강의를 듣는 내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첫날 밤이 되었다. 숙소에서 서로들 각자만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목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 그 동안 고생했던 일 행복했던 일 등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야말로 미치도록 기억에 남을 하룻밤이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던가? 우리는 만리장성보다 더 한 동지애를 느끼는 하룻밤을 보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목장 일도 잊어먹고 소녀처럼 즐겁기만 했다. 교육도 재미있고, 밥도 맛있고, 쉬는 시간도 재미있고, 그저 모든 것이 신났다. 우리 임순언니, 경미언니, 미정이, 진선이 등 정말 보고 싶다.

다음 날부터 경영자의 자세로 강의에 임했다.

강사님의 충분한 강의 준비와 언변으로 탄 짓을 할 겨를이 없이 강의에 열중했다. 계속되는 자산 부채 자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용어들을 게임을 통해 인식되어지면서 즐거웠다. 아는 즐거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림의 즐거움 어쨌거나 농업인으로 강의를 들어 본 중에 우리 윤세진 강사님의 강의를 가장 멋진 강의였다.



교육이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한국치유문화원 반태섭원장님의 디스크리터쉽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궁금해하며 내가 생각하는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바꾸면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반원장님의 강의는 내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충격이었다.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며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날려버렸다. 재미있었고 유익한 기회였다.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몰랐다.

우리에게 “특이한 4조야”라고 말씀하시던 나현채 강사님.

인간미 넘치고 위트그 넘치고 이웃집 삼촌같은 분이였다. 목장 경영과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해결 방안도 더 많이 알고 제쳤다. 회계강의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그 분께 참 고마움을 전한다. “3박 4일 우리와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제주에 오시면 꼭 우리 목장에 놀러오세요.”

우리는 경영자다. 무지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회계를 통한 결산을 해서 나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목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기회가 있어 젖소부인들만의 전국구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젖소엄마들을 만나서 너무도 반갑고 뿌듯하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추진한 낙농육우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우리 낙농인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화이팅!!!!!!☺



2010년, 제4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 성료

태풍 곤파스도 여성낙농인들의 열정 못 꺾어...



제4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이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3박4일간 전국의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등록된 모든 교육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열기만큼은 태풍 곤파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행사는 8월 31일(화) 입학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금) 수료식까지 2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행사는 교육생들이 미리 작성해온 '목장분석 체크리스트'로 각자의 목장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게임을 통해 어렵고 지루한 목장경영, 목장회계, 거래장부 관리 등을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관계리더쉽, 교육목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관한 내용이 이어져 교육생들의 활기를 불어 넣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기본교육을 받은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목장경영의 심화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

